

제공일자	2013. 2. 4(월)	담당자	김해식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41 010-7404-5057	총2매

제목 : 『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』

- 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김해식 연구위원은 보험동향 2012년 겨울호, 『테마진단 :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』을 통해 일본 사례가 “서서히 데워지는 물 안의 개구리 현상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저금리 대응 실패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지적함.

파산 보험사 : 브레이크 없는 외형성장 후 위험투자로 저금리에 대응

- 1986년 이후 전개된 1차 저금리와 1991년 이후 전개된 제2차 저금리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임기응변적이고 뒤늦은 대응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39%가 파산하는 상황을 초래
- 생명보험시장에서는 1차 저금리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8개 보험회사 중 7개사가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하였고,
 - 손해보험시장에서도 1개사가 장기손해보험의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함.
- 1985년 플라자합의로 나타난 저환율-저금리 환경에 대한 실패한 보험회사들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에 그침.
- 경영 환경이 저환율-저금리 환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일본 보험회사들은 낙관적 시장 전망에 따라 높은 예정이율의 보험상품 판매를 지속하는 한편, 자산시장에서도 자산 가격의 상승 추세에 기댄 투자 패턴을 유지
 - 1990년 고금리 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산시장 붕괴 이후 나타난 2차 저금리 이후에도 실패한 일본 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부채조정 없이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한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이차역마진 축소에 매달림.

- 실패한 일본 보험회사들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과 특정 상품에 집중
한 성장전략을 취하고, 보험영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위험투자 중심으로
저금리에 대응하여 외부 경제 환경에 취약한 사업구조를 공통적으로 유지함.

생존 보험사 :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저금리에 대응

- 생존한 일본 보험회사들은 상품구성, 판매채널, 자산-부채종합관리(ALM) 강
화 등 전 부문에 걸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금리에 대응함.
 - 1, 2차 저금리를 거치면서 생존한 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투자(자산운용)는
물론 부채(상품)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투자수익률 제고와 조달금
리 하향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.
 - 생존 보험회사들은 신계약의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늘리고 보장성 비중을
높이는 등 상품구성을 바꾸어 준비금의 평균적립이율을 낮추고 영업이익에
서 보험영업의 비중을 높임.
 - 부채의 만기구조에 대응하여 장기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의 비중을
줄여 부채 중심으로 자산을 재구성함으로써 파산한 보험회사들보다 낮은 투
자수익률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
 - 또한 생존 보험회사들은 내재가치 등 장기수익성 보고를 통해 경영진이 단
기성과 및 외형성장보다 위험관리와 수익경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.
- 최근 국제통화기금(IMF)은 일본 보험산업이 저금리에 대한 상당한 대응력을
지니고 있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
 - IMF는 글로벌 경기침체나 더블딥 시나리오에서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경우
자본의 30~50%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
- 저금리의 악영향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구
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으며, 뒤늦
은 대응의 결과는 일본의 실패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